

논술고사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탐색

이 재 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요 약 》

논술고사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논술고사의 목적, 개념, 시행방법 등을 둘러싼 논의는 명료해지기는커녕 갈수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논술고사가 갖는 사회적·교육적 의의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 논술고사의 본래적 의의를 성찰하고, 논술고사의 정체성 및 시행방법을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논술고사와 관련된 주요쟁점을 ① 논술고사의 목적, ② 논술고사의 개념, ③ 논술고사의 출제주체, ④ 논술고사의 문항유형, ⑤ 논술고사의 채점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쟁점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자가 쟁점과 관련하여 제안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논술고사의 목적은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② 논술고사의 개념은 '양식으로서의 논술'이 아니라 '장르로서의 논술'로서 정의되어야 한다. ③ 논술고사의 문항은 생활경험, 범교과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문항을 출제하여야 한다. ④ 채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채점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제어 : 논술고사, 논술교육, 양식으로서의 논술, 장르로서의 논술, 비판적·창의적 사고, 통합 교과형 논술

I. 논의의 배경

대학 입학시험 전형의 하나로서 대학별 '논술고사'가 실시된 것이 1986년이다. 잠시 중단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논술고사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셈이다. 그러나 논술고사의 목적, 성격, 시행방법을 둘러싼 논의는 명료하게 정리되기는커녕 갈수록 거칠어지고 혼란만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 '통합 교과형 논술' 개념이 들어오면서 논술고사는 실제 더욱 복잡해져버렸다.

개념 및 실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고사가 다양한 교육주체에게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논술고사의 목적 및 개념이 관련 주체 및 전문가의 오랜 숙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 아니라, 교육부 및 일부 대학이 논의를 선점한 채 정교화되지 않은 다소 거친 내용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혼란을 계기삼아 논술교육 및 논술고사의 본래적 의미를 성찰하고, 초·중등 교육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논술고사의 정체성 및 시행방법을 잘 가다듬는 것이다.

연구자는 논술고사와 관련된 주요쟁점을 ① 논술고사의 목적, ② 논술고사의 개념, ③ 논술고사의 출제주체, ④ 논술고사의 문항유형, ⑤ 논술고사의 채점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쟁점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도출은 교사, 학생, 학부모, 대학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하며, 논술교육 또는 논술고사가 잘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¹⁾.

Ⅱ. 논술고사의 목적과 개념

1. 논술고사의 목적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논술고사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 이들 목적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입 전형자료로서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수능시험 성적의 보정
- 2)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 고등사고능력 평가
- 3) 초·중등 학교교육의 정상화
- 4) 우수 학생의 선발

1)은 표현은 다소 다르지만 대학 및 교육부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는 목적이며, 2), 3)은 시행 대학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적이다. 4)는 시행 대학의 가장 강력한 동기로 보이나, 겉으로 떠들썩하게 내세우고 있는 목적은 아니다. 논술고사 목적과 관련된 지금의 논의 방

1) 연구자는 논술교육 또는 논술고사가 학교교육, 사회 일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논술교육 및 논술고사를 둘러싼 혼란, 관련 주체의 물리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면 논술고사 폐기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논술고사에 대한 자발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부족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다.

식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논의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현재와 같이 논술고사의 목적 및 내용을 대학별로 산발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논의 구조는 ① 초·중등 교육,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가 논술고사의 의의나 목적을 숙의하여 합의하고, ② 국가는 합의한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③ 학교는 이러한 교육내용을 교실 수업을 통해 충실히 구현하며, ④ 대학은 학교 교육과정, 교실수업을 통해서 가르쳐진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전문가 및 관련주체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육부와 대학이 임의로 논술고사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학교와 학생에게 강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 입학시험이 학교교육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둘째,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에 터한 목적 설정이 아니다. 예컨대, 내신 및 수능 시험에서 평가하고 있지 못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1)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먼저, 중등학교 교육내용과 대학수학능력에 비추어 볼 때, 대입시험에서 평가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현재의 대입 전형자료는 어떤 내용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경험적, 과학적 자료에 의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목적 1)이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많은 시행 대학이 2)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현재의 수능시험이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학교교육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길러지고 있는지, 혹은 길러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이들 능력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4)의 우수 학생의 선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에 대한 합의된 내용이 부족하다. 대학마다, 해마다 논술고사 평가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논술고사 목적 설정과 관련된 이러한 기초연구가 부족했음을 반증한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선택형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논술형(정확하게는 주관식 시험) 시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최근 미국의 SAT 시험에서도 에세이 시험을 도입한 것을 보면, 논술형 시험이 갖는 교육적·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논술고사의 의의나 목적이 바깥에서 개발되어 추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논리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고 진지한 논의가 생략되다보니 제시하고 있는 논술고사의 목적이 남의 목소리처럼 들리고, 살갑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셋째, 논술고사를 통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접근방법 또한 문제적이다. 서울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발표하면서 논술고사의 시행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심은 암기하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통합하여 주어진 문제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즉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에 있음.

-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의 배양을 지향함으로써 이른바 입시위주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중등학교교육의 정상화 유도²⁾

입시위주 교육으로 왜곡되어 있는 중등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논술고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도는 선한 의도이며, 두루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① 초·중등교육이 자기 주도적학습 능력과 높은 사고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정착된 다음에 이렇게 길러진 능력을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② 논술고사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이 길러지도록 학교교육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원칙적으로는 전자의 접근방법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병민(2005, pp. 81~107; 2006, pp. 129~162) 역시 ① 토론과 쓰기를 통해 교육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내용은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② 교육방식도 토론과 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③ 토론과 쓰기 문화가 한국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논술고사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가르친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러나 수능시험이라는 매우 영향력이 큰 시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실수업이 ‘교사 전달 → 학생 수용’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수업구조³⁾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숙의와 합의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2) 서울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의 기대 효과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논술고사에 대한 준비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준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기계적인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을 통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
-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토론 위주의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
-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
-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3) 연구자는 ‘교사 전달 → 학생 수용’의 수업구조보다는 ‘읽기(침묵: 내적대화) → 숙고하기(침묵: 내적대화) → 토의·토론하기(웅성거림: 외적대화) → 쓰기(침묵: 내적대화)’의 수업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논술고사는 더디겠지만 이러한 수업구조가 교실수업에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업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교육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심도 깊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활발한 표현활동(토의·토론 및 쓰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논리력,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높은 사고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 교육과정에서도 수업방법으로서 토의·토론 및 쓰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②와 같은 접근방식을 통해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이러한 취지나 의도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논술고사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앞서 가지 말아야 한다. ‘한 걸음, 단지 한 걸음만 앞서 있어야’ 한다. 너무 멀리 앞서 가면 안 된다. 교실수업의 주체인 교사, 학생이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연구자는 서울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이 이러한 전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의문이다. ① 논술고사 시행 대학에서 의도한 대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표를 발견하기 힘들고, ② 많은 학생, 학부모가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말하며 논술고사를 학교교육 밖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2)가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훌륭한 시민의 주요 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은 ①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화·명료화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 초·중등학교, 대학, 사회 일반에 의해 널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논술고사 문항이 현재의 초·중등교육의 현실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출제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논술고사의 목적은 다음 네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①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그러한 사회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과 소양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
- ②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 ③ 해당 능력은 논술고사를 통해 타당도 높게 평가될 수 있는가?
- ④ 논술고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과 소양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실수업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2. 논술고사의 개념

논술고사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교육부와 대학이 다르고, 대학마다 다르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념과 실제 논술고사 문항에서 유추 가능한 개념이 다르다. 논술고사의 개념은 <표 1>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논술의 개념에 따른 평가 목표·내용·사례

논술의 개념	평가목표	평가내용	평가사례
1) 장르(genre)로서의 논술 (논술형 시험)	- 선발을 위한 평가 (사고력 중심: 개념, 지 식 구성 능력) - 피드백을 위한 평가 (국어 교과와 쓰기 영역 평가)	- 장르적 성격이 강한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 고등사고 능 력(분석력, 종합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 * 범교과 내용 * 표현력 중심 평가	-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 - 미국 SAT 에세이 시험 - 1986, 1987년 논술고사 - 일부 대학의 논술고사
2) 양식(mode)으로서 의 논술 (주관식 시험)	- 선발을 위한 평가 (개념, 지식의 이해 정 도 중심) - 피드백을 위한 평가 (모든 교과 평가)	- 쓰기라는 언어 양식을 통 해 교과에서 다루는 개념, 지식에 대한 학습자의 이 해 정도(양과 질) 평가 * 특정 교과의 특정 개념·지식 중심 * 이해력 중심 평가	- 프랑스 바칼로레아 전공 시험 - 학업성취도 평가 수행평 가 문항 - 대학별 본고사 문항 - 학교의 주관식시험 - 일부 대학의 논술고사

장르로서의 논술은 일정한 글쓰기 형식과 구조(서론 → 본론 → 결론 / 문제제기 → 논거 제시 → 결론도출 등)를 요구하며 주로 분석력, 종합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문항은 대체로 단독 과제형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경험, 범교과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요구한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과목 시험과 미국의 SAT 에세이 시험⁴⁾이 전형적인 유형이다⁵⁾.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1987년에 모든 대학이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출제하였으며, 현재 일부 대학의 논술고사 문항이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언어활동양식으로서 논술은 다양한 언어양식(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쓰기를 통해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소위 ‘주관식 시험’에 해당한다. 주관식 시험은 특정한 글쓰기 형식과 구조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체로 교과에서 다루는 지식의 획득 유무, 지식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데 적용된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계열별 전공시험, 대학별 본고사 문항, 학교의 주관식 시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간조선의 “논술이 교육을 바꾸고 있다”라는 제목

4) SAT 시험은 과거에는 SAT-I 과 SAT-II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SAT 논리력평가(Reasoning Skills)와 개별교과목평가(Subject Tests)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SAT 논리력평가에서는 비판적 읽기(Critical Reading), 수학, 작문(35분의 선택형 문항, 25분의 에세이 문항) 세 영역을 평가한다. 기존의 작문은 SAT-II에서 평가했지만 새로운 SAT 시험에서는 대학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치르는 SAT 논리력 평가에 포함시켰다(이병민, 2006, p. 139).

5) SAT 에세이 시험의 평가내용은 ① 생각을 명확히 조직화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 ② 주된 논거를 전개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③ 글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를 통해 에세이 시험이 ‘장르로서의 논술’ 시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눈을 돌려 국제적으로 보면 대학입시에서는 논술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의 사실상 대입시험인 ‘바칼로레아’는 필기, 구두, 실기 시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필기시험은 사지선다형이나 단답형이 전혀 없는 논술시험이다. (주간조선, 1891호)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과목 시험과 다른 전공과목 시험 모두 필기시험, 즉 주관식시험이지만, 전자는 ‘장르로서의 논술’, 후자는 ‘양식으로서 논술’로서 서로 개념 및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자는 이들 모두를 논술시험이라고 하고 있고, 이때 논술은 당연히 ‘장르로서의 논술’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논술형 시험과 주관식 시험을 엄격하게 구분할 때, 많은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논술고사의 개념은 ‘장르로서의 논술’이다. 문교부는 1984년 9월 2일에 ‘문교부 대입 논술고사 지침’을 고시하였는데, 이 지침에서는 논술고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논술고사란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응시자들의 고차적인 사고능력(표현력·조직력·종합력·추리력·창의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교과목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소재(탈교과적·범교과적) 중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형태로 출제, 채점되는 고사이다. (김은전, 1985, p. 444)

이러한 관점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5년 8월 30일에 대학 논술고사가 본고사인지 여부를 가리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도 논술고사의 개념을 ‘장르로서의 논술’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교육부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논술에 해당하는 기준	비(非)논술에 해당하는 기준
답안 유형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가	단답형 또는 선다형으로 되어 있는가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가	단순히(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교과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인가
논리, 추론 등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단순 암기 위주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다양한 답이 가능한 것인가	정형화된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것인가
주제에 대한 주장, 의견 진술의 전개과정을 평가하는 것인가	지식의 숙지 여부를 주로 평가하는 것인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이해한 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의 것인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 이상의 지식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가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정의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교육부의 압력이 강한 시기에는 대체로 ‘장르로서의 논술’ 시험에 가까운 논술고사 문항을 출제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양식으로서 논술’ 문항에 가까운 문항을 출제하려는 욕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다. 수리논술, 과학논술, 영어논술 등은 일부 대학의 이러한 욕망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일부 대학의 ‘통합 교과형 논술’ 문항은 교육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교과의 특정 지식을 묻는 주관식 문항(양식으로서의 논술)에 가깝다. 논술고사의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실제 논술고사 문항이 대학마다 다르게 출제되는 것은 이와 같이 ‘논술’ 또는 ‘논술고사’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대학이 교육부의 방침대로 ‘장르로서의 논술’을 지향한다고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양식으로서의 논술’ 즉 주관식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학생과 사회 일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정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을 바탕으로 어느 시험이 더 타당하고 효과적인지 치열하게 논의하여 어느 하나로 합의하고, 그 개념에 충실하게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왜 ‘장르로서의 논술’이 타당한지 대학 및 사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대학 역시 왜 ‘양식으로서 논술’(주관식 시험)이 타당한지 학교 및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연구자는 장기적으로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주관식 시험(양식으로서의 논술)으로 대학 입학시험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에 대한 지식을 학습 주체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학교교육이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의 대학별 본고사가 지향했던 객관적인 교과지식의 소유 여부를 평가하는 문항에는 반대한다. 이러한 문항은 현재 수능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교과에 대한 주관식 시험이 실시되더라도 장르로서의 논술고사 역시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 그리고 언어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은 모든 교과에서 동시에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고, 개인의 행복과 건강한 민주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 혹은 소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Ⅲ. 논술고사의 출제주체, 문항유형, 채점

1. 출제주체

논술고사 문항을 누가 출제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논술고사의 목적,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논술고사가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출제주체는 대학의 교수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한편, 논술고사가 중등 교육을 통해 형성된 능력을 평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중등학교 교사가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위와 같이 명확하게 양분된다면, 논술고사 출제주체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밝히고 있는 논술고사의 목적을 보면, 대체로 위에서 밝힌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상정하고 있다. 예컨대,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등학교교육의 정상화 유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이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겠지만, 그 능력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중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능력, 또는 형성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지 않겠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나 목적은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널리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논술고사의 목적, 출제범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술고사의 출제주체가 대체로 교수중심이라는 데 있다. 논술고사가 중등학교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평가주체의 한 축은 당연히 학교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가르친 사람이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 출제위원은 모두 고등학교 교사이다. 바칼로레아 시험이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하고 채점의 전 과정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⁶⁾. 물론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과 우리나라의 논술고사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논술고사의 출제를 모두 중등학교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바칼로레아 시험은 ‘졸업자격 시험’이지만, 우리나라 논술고사는 ‘대학 선발 시험’이다. 대학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의 교수가 출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출제범위가 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실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등학교 교사의 참여 역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실수업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대학의 논술고사 문항이 지나치게 수준이 높다거나,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교수 위주로 문항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논술고사의 출제주체는 교수와 교사여야 한다. 두 주체가 만나 논술고사 문항에 대해 충분히 숙의하고 조율할 때, 논술고사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며, 논술고사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6) 우선 바칼로레아 시험문제는 각 도별로 다르게 출제된다. 도 교육 위원회에서 과목당 약 10여 명의 일선교사를 선발, 소집하여 과목당 장학 감독관의 주관 아래 출제 방향에 관한 수차례의 회의를 갖는다. 참가한 교사는 최종적으로 각자 한 개의 문항을 제안하는데, 이때 개략적인 모범답안을 함께 제출한다. 제안된 문항 중 최종 한 개의 문항을 선택하는데, 이는 장학 감독관의 고유한 권한이다 (한대호, 2005, pp. 58~130).

2. 논술고사 문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출제 방향

많은 대학이 2008학년도부터 새로운 유형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통합 교과형 논술’이라는 명칭 속에 그 새로움의 성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몇몇 대학의 2007년 정시 논술고사와 2008년 모의 논술고사를 분석하면서, 논술고사 문항 유형이 앞에서 논의한 논술고사의 목적, 개념에 충실하게 출제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문항유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출제

다음 [A 대학], [B 대학], [C 대학]의 논술 문항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대학의 논술고사가 ‘읽기 능력’ 그것도 ‘사실적 읽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수능시험은 주로 읽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수능시험에서 평가하지 못하는 표현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것이 논술고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항 유형은 적절하지 않다.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①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독서경험, 생활경험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 ② 자신의 관점을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조리 있게 전개하는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출제할 필요가 있다.

[A 대학]

〈2007년 정시〉

다음 네 개의 제시문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관련된 글이다. 그 주제를 말하고, 제시문 간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2008년 모의〉

- 1 - 제시문 (가)를 4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 2 - 제시문 (나)의 논지를 밝히고, 이것을 참고하여 제시문 (다)를 해설하시오.
- 3 - (라)의 표에 나타난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 변화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들을 참고하여 1970년 이후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의미를 사회변동과 관련시켜 논술하시오.

[B 대학]

〈2007년 정시〉

- 지식 정보화 시대에 우리 사회 각 영역은 어떤 속도로 변화해야 하는가?

(조건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제시문 나]의 내용에 비추어 논하라. 그 과정에 미국 사회와 우

7) 3개 대학의 논술고사 문항은 김동환(2007, pp. 46~49)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비교하라.

(조건 2) 예화 1, 2, 3을 사회의 변화 속도와 연관지어 그 의미를 파악하라.

(조건 3) 세 개의 예화 가운데 하나를 택하고 그 입장에 서서 기업, 가족, 정부의 변화 속도를 예측하고 그 이유를 밝혀라.

〈2008년 모의〉

(가-1) 1 - 위의 세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시오.

2 - 각 제시문의 핵심적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오.

3 - 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하시오.

[C 대학]

〈2007년 정시〉

-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의 느낌과 생각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아래 제시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지 사회현실의 예를 들어 논하시오.

〈2008년 모의〉

1 - 제시문 (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각각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비교하시오.

2 -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를 제시한 제시문 (나), 제시문 (다) 가운데 본인은 어떤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시오.

3 - 제시문 (나),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의 두 표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해석하시오.

나. 독서경험, 범교과 학습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항 출제

이전 논술고사와 2008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문항은 ‘제시문+논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시문+논제’ 형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제시문은 논제와 관련된 수험생의 자유롭고 활발한 사고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논술고사가 제시문 요약 및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정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논술 문항은 묵직한 질문을 담박한 방식으로 던지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논제가 이런 형식일 때, 수험생은 특정 도서나 자료에 묶이지 않고 자신의 사유 능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으며, 그 동안 축적한 독서경험을 제한 없이 드러낼 수 있다. 논제와 관련된 제시문은 출제과정에서 출제자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장면에서 수험생에 의해 동원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 SAT 에세이 시험 문항, 프랑스의 바칼로

레아 철학과목 논술 문항은 ‘장르로서의 논술’ 문항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바칼로레아 철학과목 문항】

〈인문학 관련 문항〉

-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만이 담기는가?
-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 역사가는 객관적일 수 있는가?
- 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 감각을 믿을 수 있는가?
- 인류가 한 가지 언어만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과학 관련 문항〉

-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 계산, 그것은 사유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 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
- 오류는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이론의 가치는 실제적 효용가치에 따라 가늠되는가?
- 기술이 인간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
- 자연을 모델로 삼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가?

【미국 SAT 에세이 시험 문항】

개인적으로 얻는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자신이 이룩한 성취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동기와 보상이 된다. 목표를 성취한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사회적 인정을 기대한다면, 실망이나 좌절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만족감이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부나 명예를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 얻게 되는 개인적인 만족감 그 자체가 바로 보상이다.

문제 : 위의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작성하는 에세이에서는 문학, 예술, 과학, 기술, 최근의 사건 또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여러 사례를 논의함으로써 여러분의 입장을 변호하기 바랍니다. (이병민, 2006, p. 141 재인용)

다.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 출제

서울대는 2008년 정시모집 논술고사의 출제방향을 발표하면서 “통합교과형의 개념은 교과와 교과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의 내면에서 길러지는 사고력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른 많은 대학이 이러한 대안적 논술고사 방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8년 모의 논술고사를 통해 이러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통합교과형 논술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적가 있다. 첫째, ‘제시문의 통합’이지, ‘사고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통합적 사고란 대상과 세계를 차이와 관계 속에서 섬세하고 유연하게 바라보는 눈일 텐데, 현재의 논술문항은 서로 다른 복수의 제시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찾거나, A글의 관점을 B글에 적용하는 정도의 이해능력을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문항은 ‘통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요구하는 능력은 제시문의 정확한 이해 능력에 그치고 있다. 문항은 비록 단출하지만 그 문항이 사물과 세계가 본래적으로 안고 있는 애매성과 복잡성을 전제하고 있을 때, 비로소 수험생의 통합적 사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교과 통합’은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실수업과는 거리가 멀다. 제1~7차 교육과정에서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통합’, 또는 ‘교과통합’은 화두가 아니었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설계하지도 않았고,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합이 강조되는 교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교과 간의 통합이 아니라 교과 내 통합에 그치고 있다. 예컨대, 국어과의 경우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간의 통합, 그리고 지식, 기능, 맥락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수업에서도 교과 간 통합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상, 학교 여건상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 가르치지 않은, 배우지 않은 ‘교과통합능력’ 또는 ‘통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억압적이고, 부담이고, 폭력일 수 있다.

셋째, 통합을 강조하면서 문항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하고 있다. 몇몇 대학의 경우, 인문, 사회, 과학 등의 분야에 두루 걸쳐 있는 개념이나 지식을 유창하게 부려 쓰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 또한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실수업과는 거리가 멀다. ‘모든 사고는 통합적 인지 활용’이기는 하나, 이는 대체로 개념과 개념, 개념과 사건, 사건과 사건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작용하는 사고활동의 본질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지, 교과 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 범교과적·탈교과적인 문항 출제

‘S대학 모의고사’ 문항과 같이 많은 대학이 특정교과에서 다루는 특정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과 이해를 전제하고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문계열 논술고사에서도 종종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연계열 논술고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항은 논술고사 문항이 아니라 주관식 문항이다. 해당 논술고사가 객관식 시험인 수능시험에서 평가하지 못하는 교과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식 문항을 출제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논술고사란 이름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본래적 의미의 논술고사의 목적, 개념에 맞지 않는 몇몇 대학의 이러한 출제 경향으로 인하여 학교 및 사회 일반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고 있고, 학생의 학습 부담이 늘고 있으며, 논술고사가 대학별 본고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논술고사는 특정교과의 특정 개념이나 지식의 유무 또는 이

해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다. 대학 수학, 사회생활에 필요한 분석력, 종합력,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논술고사에는 특정교과의 특정 개념, 지식의 이해 정도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교과적·탈교과적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

【S 대학 모의고사 - 인문계열】

위의 내용은 수리논리적인 문제와 풀이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정리되어 제시된 풀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 이제 여러분이 이 풀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에게 설명하고자 한다.

- (1) A라는 문자열을 관찰해서 얻어진 표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표가 얻어질 확률이 문자열 GACT를 얻을 확률과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해	1	2	3	4	5	6	7	8	9	10
변형	C+	O	+G	O	A+	O	O	+T	O	O

- (2) A로부터 GACT에로의 문자열 변형을 나타내는 표의 개수가 ${}_{10}P_3$ 을 2로 나눈 것, 즉 360개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 (3) 문제 풀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하여 문제 풀이 전체에 걸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S 대학 모의고사 - 자연계열】

아래 가), 나)와 같이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지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지질, 대기, 환경 및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 가) 지구가 반경이 약 3,400k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경우(단 지구의 평균 화학조성,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자.)
- 나) 지구가 지금의 태양-지구 거리의 약 70%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경우(단 지구의 평균 화학조성, 크기는 지금과 같다고 가정하자.)

3. 논술고사의 채점

논술고사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들어 논술고사의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채점의 공정성, 신뢰성 문제가 논술고사 시행을 반대하는 주요 논거가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대학 입학시험이 갖는 영향력과 국민적 관심사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논술고사 채점의 신뢰도 문제를 다룬 다음 기사는 논술고사 채점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한양대 홍○○ 교수는 ‘논술의 채점은 태생적으로 정확할 수가 없다’고 단언한다. “우선, 대학입시는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수많은 교수들이 함께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이 다

른 교수들은 선호하는 사고방식도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예컨대, 정경계열 교수들이 효율성을 논지로 내세우는 답을 좋아한다면, 인문계열 교수들은 인간성이 강조된 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논지가 성과 지향적인가 아니면 온정적인가에 따라 채점 교수의 가치관이 반영된 상이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안을 채점하는 각 교수마다 평균점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젊은 교수들은 대개 간간하여 전반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고, 연세가 드신 교수들은 너그러운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또한 점수의 폭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령 한 채점 교수의 재량이 20점이라면, 어떤 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20점까지 넓은 폭을 갖습니다. 반면 어떤 교수는 점수 폭이 크지 않아, 못 써도 10점 이하의 잘 안 주고 웬만큼 잘 써도 18점 이상은 안 줍니다. (……) 논술 시험의 채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보통 사나흘 간 채점을 계속합니다. 교수도 인간입니다. 첫날과 맨나중 날 채점의 잣대가 컴퓨터처럼 동일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또한, 아무리 편견을 없앤다 해도 글씨를 못 쓰거나 지저분하게 수정한 답안보다는 깨끗하게 글씨를 잘 쓴 답안의 평가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경향신문, 2007. 3. 2; 김중신, 2007, pp. 35-36. 재인용)

논술고사 채점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태생적이어서’ 개선하기 힘들다면 논술고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논술고사 채점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① 채점자의 가치관에 따른 주관적 채점, ② 채점자의 채점성향(간간함/너그러움)에 따른 채점 차이, ③ 채점자 간의 점수 폭의 차이, ④ 채점자의 피로도도에 따른 채점의 비일관성, ⑤ 내용과 거리가 먼 부차적인 요소(글씨 등)의 개입 등은 소수 일부 대학에서 노출되는 문제이고, 채점체제 개선 및 채점자 연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이 간과된 채, 위와 같은 채점의 문제가 선정적으로 확대·재생산됨으로써 논술고사 폐지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논술 또는 주관식 문항을 출제하고 있고, 채점의 신뢰도, 공정성 문제가 시행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채점체제가 갖추어져 있고, 갖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시험이 논술 및 주관식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행정고시를 포함한 많은 고시가 2차 전형에서 논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있고, 비록 제한적 반응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등고사 임용시험 1, 2차 전형도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포함하고 있다. 도입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서도 에세이형 논술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3고(고부담, 고위험, 고난이도) 시험이 채점 시비 없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것은 타당하고 공정한 채점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논술고사는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적절한 평가방법이지만, 선발시험이기 때문에 채점의 신뢰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자 간 신뢰도, 평가자 내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논술고사의 채점을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실제 채점에 참여한 사람이 채점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것은, 현재 대학이 이러한 공정하고 신뢰로운 채점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체제 속에서 채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3〉 논술고사 채점 절차

채점 절차	주관 및 참여자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작성	출제위원
↓	
채점위원 연수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설명	출제위원+채점위원
↓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에 대한 토의 및 수정	출제위원+채점위원
↓	
1차 가채점	채점위원
↓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수정	출제위원+채점위원
↓	
2차 가채점 * 채점위원 간 일치도가 .9 이상일 때까지 반복	채점위원
↓	
채점(동일 답안지 3인 채점)	채점위원
↓	
채점결과 검토·확인 * 채점위원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재채점	채점위원
↓	
채점결과 산출 * 채점위원 3인의 평균	관리요원

우려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사적이고 제한된 경험에 기초해서 논술고사 채점의 신뢰도를 문제 삼고, 이를 선정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논술고사 폐지론을 부추기는 것이다. 타당도를 중시하는 논술시험, 주관식 시험에서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면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채점체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논술고사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논술고사 또는 논술교육이 갖는 교육적·사회문화적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논술고사와 관련된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치열하게 논쟁하되 바깥으로 내보내는 목소리는 하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작 논술고사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주체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한 상태에서 교육부 및 일부 대학이 성급하고 거칠게 논술고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나섬으로써 문제가 꼬이게 되었다.

지금은 논술고사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다양한 주체가 모여 충분히 숙의할 때이다. 연구자는 논술고사와 관련된 쟁점을 ① 논술고사의 목적, ② 논술고사의 개념, ③ 논술고사의 출제주체, ④ 논술고사의 문항유형, ⑤ 논술고사의 채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술고사의 목적은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다만, 이러한 능력이 어떤 하위능력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논술고사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교육내용보다는 교육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현재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수업을 섬세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논술고사의 개념은 ‘장르로서의 논술’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념에 충실하게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 일부 대학이 ‘양식으로서의 논술’ 즉 주관식 시험을 논술고사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관식 시험이 평가도구로서 더 타당도, 신뢰도가 높다고 한다면 학교, 일반 국민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셋째, 논술고사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고등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지만, 그 능력은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이다. 따라서 논술고사 출제위원은 현재의 교수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과 교실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논술고사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고, 학교 및 학생의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넷째, 논술고사 문항은 생활 경험, 범교과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전개할 수 있도록 출제해야 한다. 현재 논술고사 문항, 특히 통합교과형 논술문항은 ① 읽기 능력 평가, ② 학생의 활발한 사고 방해, ③ 특정교과 지식의 유무 평가 등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논술문항이 담박하면서도 묵직한 질문일 때, 논술고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비판적·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타당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논술고사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평가체제를

도입·적용해야 한다. 현재 논술고사 채점과정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이거나 태생적이어서 극복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논술고사, 논술교육은 어렵기는 하지만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논술고사 관련 주체인 대학, 교육부, 학교의 긴밀한 토의와 협력을 통해서 논술교육, 논술고사의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되고, 충실하게 실천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동환 (2007). 대학별 논술고사의 정체성과 방향성. **국어교육학회 제36회 정기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45-54.
- 김은전 (1985). 논술고사란 무엇인가. **국어교육**, 53, 444.
- 김중신 (2007). 국어교육과 통합교과논술의 방향. **국어교육학회 제36회 정기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5-36.
- 박정하 (2003). 인문 교육의 근본: 글쓰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시대와 철학**, 14-1, 175-195.
- 원진숙 (2006). 논술 개념의 다층성과 대입 통합 교과 논술 시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 122, 201-231.
- 이병민 (2005). 논술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논술시험의 사회문화적 고찰. **교육비평**, 제19호, 교육비평사.
- 이병민 (2006). 논술고사의 성격 및 타당성 고찰. **국어교육**, 121, 141.
- 이재기 (2007). <대학별 논술고사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토론문. **국어교육학회 제36회 정기 학술발표대회자료집**, 55-58.
- 한대호 (2005). 프랑스와 한국의 대학입학제도의 비교 연구. **서양사학연구**, 제13집, 57-130.

• 논문 접수 : 2007년 9월 1일 / 수정본 접수 : 2007년 10월 2일 / 게재 승인 : 2007년 10월 19일

ABSTRACT

The Issues and Orientation of the Korean Essay Test

Jae-Ki Le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Korean essay test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o called, Nonsul(the Korean essay test administered by each university) has been enforced for about 20 years. The social,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Korean essay test is immense. However, the goals, concept and regul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essay test are not clearly defined. This article categorize the issues of the Korean Essay test in four. They are ① the goals of essay test, ② concept of essay test, ③ a person who makes questions for an examination, ④ types of items, ⑤ a person who rating an answer. The issues cover from Nonsul items to test system.

The desirable alternatives this article suggests are as follows: ① essay test must evaluate student's critical, creative thinking ability, ② essay test should focus on writing as a genre, ③ writing task must be open-ended and inclusive, ④ rating system for essay test to reinforce its reliability is needed.

Key Words : essay test, essay writing education, essay test as a mode, essay test as a genre, 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essay as a mixture of multiple subjects